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3만원

대형유통업체 31만7923원

aT, 설 성수품 비용 정보 제공

설 차례상 음식 주재료 가운데 무·배추 가격이 크게 오르고 사과·배 가격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올해 설 차례상 평균 차림비용은 지난 8일 기준 전통시장 23만972원, 대형유통업체 31만7923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2%, 0.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 장을 보면 대형 유통매장보다 8만6951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통시장과 대형매장의 가격 차이는 8만4943으로, 올해 가격 차이가 더 커졌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무(136.4%)·배추(67.4%) 등 채소류는 생산량 감소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무 100g 가격은 208원으로, 지난해 가격 88원보다 120원 높았다. 배추 300g은 467원으로, 지난해(279원)보다 200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오른

■ 설 성수품 구매적기

1.15 (수)	1.16 (목)	1.17 (금)	1.18 (토)	1.19 (일)	1.20 (월)	1.21 (화)	1.22 (수)	1.23 (목)	1.24 (금)	1.25 (토)
D-10	D-9	D-8	D-7	D-6	D-5	D-4	D-3	D-2	D-1	설날
사과·배		배추·무			시금치					
		소·돼지								
		명태					닭고기·계란			

품목은 달걀(19.4%), 밤(15%), 동태(13%) 등이 있었고 농식품 가운데 다식(7%), 약과(5.5%), 밀가루(1.4%) 등이 올랐다. 출하량이 늘어난 사과(-19.8%)와 배(-15.4%) 등 과일류는 가격 하락 폭이 컸다.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사과 5개 평균 가격은 9536원이었고, 배 5개 가격은 1만4258원으로 나타났다. 쌀 1.2kg은 지난해 설을 20일 앞뒀을 때보다 3.4% 하락한 3161원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추(-13.2%), 다시마(-11.9%), 엿기름(-9.8%) 등도 가격 하락 폭을 더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설 성수품 가격을 분석해 올해의 성수품 구매적기도 발표했다. 채소류(배추·무)와 축산물(쇠

기)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설 당일~4일 전)를 피해 각각 설 5~7일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또 사과·배 등 과일은 선물세트 등의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설 8~10일 전에 구입하는 것을 권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등 10대 품목 공급량을 평상시의 대비해 1.3배 확대할 계획이다. 하루 평균 5042t이었던 농축산물 공급량은 3주 동안 1일 6715t 시중에 풀린다.

공사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가계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앞으로 오는 16일에 한 차례 더 설 성수품 구입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보는 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농축산물 판매확대 추진 결의



농협 전남본부 임직원 30여 명은 지난 10일 나주시 남평읍 한라봉 농장을 방문해 '2020년 농축산물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농산물 수확을 도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매출 목표 3조8000억원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올해 농축산물 매출 목표를 3조8000억원으로 세우고 '경제사업 핵심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10일 나주시 남평읍의 한 한라봉농장에서 지역본부 경제사업부 직원 30여 명과 '2020년 농축산물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전남지역 농축산물 판매 목표를 지난해(3조6000억원)보다 5.5%(2000억원) 증가한 3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남본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20년 경제사업 핵심추진 과제로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아열대농산물 육성 ▲연합사업 활성화 ▲벼 직파재배와 새정무 쌀 보급 확대 ▲축산 드론방역 체계 구축 등을 선정했다. 특히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

한 '공각지 운동'과 '일·삼·공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각지'는 '농산물을 공짜로 달라하지 말고, 깎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를 담았고 '일·삼·공'은 '일일 세계 공기밥 먹기'를 뜻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축산물 산지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청년농업인 농장에서 한라봉 수확을 도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0 광주전남 경제리더에게 듣는다

김석기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최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한 발짝 나아가고 농업인 환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다 함께 성장하는 전남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달 취임 1년을 맞은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12일 '농도(農都) 전남의 농업 발전을 위한 4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이 제시한 올해 추진전략은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신소득 작물 육성 ▲농업인 환원사업 강화 ▲전 법인 동반성장 노력으로 정리된다.

그는 농협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로 조합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농축산물 판매를 들었다.

전남본부의 올해 농축산물 판매 목표는 3조8000억원으로, 전남본부가 마련한 대표 브랜드 '풍광수토' 쌀, 과일 '상큼애', 아열대작물 '오매향' 등이 그 중심에 서었다.

“지난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토'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을 처음 돌파했고 전남 광역 과실브랜드 '상큼애'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40여 개 매장을 둔 '빈스' 식재료로 쓰이게 됐습니다. 전남 농산물 브랜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올해는 브랜드 품목을 확대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벼 쓰러짐 피해 최소화가 임종된 전남 쌀 품종 '새정무'는 대표 품종으로 확대 보급하며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농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

농산물 고소득 작물로 전환

브랜드 확대로 경쟁력 강화

지자체 협력사업 적극 추진

소득창출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발을 내디디는 아열대작물 브랜드 '오매향'은 농가 통합 경영컨설팅으로 생산·유통 기반을 확립한다. 김 본부장은 "기후 온난화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 주요 농산물을 고소득 작물로 전

환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열대작물 육성"이라며 "지난해 전남본부가 발족한 '아열대작물 생산 아카데미클럽'을 활성화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 등과 협력, 권역별 아열대과수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대안으로는 '스마트팜'을 들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보급해 청년농업인 유입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전남 본부는 1년생으로 재배하고 있는 고추 등 품종을 다년생으로 전환하는 재배기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의 태풍,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자연재해 위기를 겪었지만 전남지역은 '청정지대'를 유지하며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자치단체의 농정방향을 파악하고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업인 환원사업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또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이 출자한 '100% 민족자본' 기관으로서 농·축·협·별 미래 성장사업을 함께 그려나갈 것"이라며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법인의 동반 성장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광주공판장, 제주해군에 농산물 공급

올 첫 15억원 규모 군납

서귀포시축산농협과 협약

광주시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농협 광주공판장이 올해 처음으로 제주지역 군납을 시작한다.

농협 광주공판장과 서귀포시축산농협은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군납 농산물 출하 협약 및 동반성장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농협 광주공판장은 제주해군 장병에게 연 15억원 상당에 달하는 농산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출하는 농협 광주공판장 중도매인인 ㈜신화농산이 맡는다.

농협 광주공판장은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1430억원)보다 4.8%(70억원)

올린 1500억원으로 세웠다.

육영석 농협 광주공판장 사장은 "기존 전남·전북지역 외에도 제주권역까지 사업확장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공판장이 위치한 서귀포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달 20일 관리동 앞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4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달부터 7000만원을 들여 채소동 시설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도매시장 측은 용역 결과가 다뤄 주채널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증축 또는 단독 건물 조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 해외개척단 모집

aT, 내일까지 120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14일까지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아프로' 9~10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해외개척단은 한국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흥시장 진출을 해외 현지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 개척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총 7개국이다.

선발된 청년개척단은 현지 수소를 포함한 체제비와 왕복항공권 등 파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우수 수료자는 내년 공사 청년인턴 입사지원 때 가산점을 받는다.

만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